

목포신항만, 기아 수출차량 하역 거부

광주공장 생산 스포티지 등 300여대 담양 악적장으로 회송
항만측 적자 이유 4개월전 하역금지 통보...기아차 대책 고심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수출 차량들이 목포 신항만측으로부터 하역을 거부당하고 다시 되돌아 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목포신항만과 기아차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께 목포 신항만 부두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기아차 수출차량 운송트럭인 TP(트랜스포터)트럭 60 여대가 심고 있던 수출차량을 내려놓지 못하고 담양 악적장으로 철수했다.

이들 TP트럭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목포 신항만에 도착했으나 신항만

측이 하역을 금지하면서 7시간여 동안 대치하다 결국 되돌아 갔다.

TP트럭에 실려 있던 수출차량은 스포티지 등 300여대로 모두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다.

신항만 관계자는 “기아차에 수개 월 전부터 하역을 금지한다고 통보했으나 최후 시한인 오늘도 수출차량을 보내와 예정대로 하역을 거부하고 항만진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수출 차량은 지금까지 목포 신항만을 이용

해 해외로 나갔으나 지난해 말부터 신항만측이 적자를 이유로 더 이상 기아차의 수출차량 하역을 할 수 없다고 통고하면서 이날 사태가 예견됐었다.

신항만측은 적재장소만 넓게 차지하고 항만 수익성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기아차 수출차량들의 하역작업을 거부하고 대신 조선소용 대형건조물 하역 등을 취급한다는 내용

의 부두운영전략을 재편성하고 4개 월 전부터 기아차 층에 하역금지를

통보했다.
기아차도 목포 신항만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제 2의 하역장소를 물색해 왔으나 아직 새로운 하역부두를 확보하지 못했다.

기아차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주후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뾰족한 방법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내일은 일단 인근에 있는 재정부두로 수출차량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정소가 협소해 장기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며 “수출차량들이 원활하게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전남 6개군에 특성화 산단 조성

장흥·강진·보성·담양·곡성·영광 개발 용역 착수

각각 165만㎡ 규모 지정...기업 투자 끌어들이기 나서

전남도가 장흥·강진·보성·담양·곡성·영광 등 6개군의 투자자 유치를 위해 특성화 산단지 조성한다.

전남도는 15일 “장흥 등 6개 지구에 각각 165만㎡ 규모의 특성화 산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산단지지구

지정증인(‘가칭’) 산단지 인·허가 절차 효율화를 위한 특례법’과 연계하여 최단기간내 산단지지구 지정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도는 지구당 10억원의 용역비를 투입, 용역회사로 하여금 ▲후보지 및 타당성 조사 ▲문화재 지표 조사 ▲항공측량 ▲산단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토지 및 지장을 조사 등을 8개월 이내로 마치게 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이날 6개 자치단체, 민간개발업체, 용역회사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업종, 입주수요조사, 민간개발업체 유치계획 등을 포함한 용역 추진방안과 국토해양부에서 하반기 시행예정으로

지를 결정하게 된다. 대상지 명칭은 유치 업종과 새로운 산업 트렌드를 반영해 명명하며, 유치 업종은 산업 단지별로 중복되지 않게 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특히 산단지 개발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민간개발업체의 요청에 적극 부응해 지방환경청, 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까지 TF팀에 포함시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더욱 단축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06년부터 급증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조선산업, 농수산물 가공산업, 신소재산업, 바이오신약산업 등 타지 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22개소 5천911만㎡에 대하여 특성화 산단지 개발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영광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 준공

3㎿급 규모 18일 첫 가동

영광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된다.

영광원자력본부 내 6㎿(4천㎡) 부지에 들어선 설비용량 3㎿급 태양광 발전소 ‘영광 솔라파크(Solar Park)’(사진)가 18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06년 11월 233㎿를 투자해 1단계(1.25㎿)와 2 단계(1.75㎿)로 나뉘어 설비용량 3㎿급으로 건설된 솔라파크는 최대 1천

500여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같은 규모의 전력을 화력발전으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석유를 연간 845t 가량 대체할 수 있으며, 2천123㎿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준공되는 솔라파크에는 1㎿당 0.2㎾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고경형 집열판 모듈(1.49m × 0.98m)이 1만5천48장 설치됐다.

영광은 전국 평균보다 10% 가량 일사량이 많아 태양광 발전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김대중 전 대통령이 15일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인천 공항에 배웅 나온 인사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인구 감소폭 한풀 꺼였다

2002년 이후 월 평균 2,000명서 지난해 말 873명 줄어

전남도의 인구 감소 추세가 한풀 꺼졌다.

전남도는 15일 “지난 2002년 이후 월평균 2천여명의 인구가 감소해 왔으나, 지난해 6월부터는 1천308명으로 줄어들어 뒤 같은 해 말에는 873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2년말 현재 월평균 4천608명이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4천699명, 2004년 2천535명, 2005년 1천747명, 2006년 2천224명 등 감소폭이 꾸준히 줄었다.

반면 무안군 3천947명(6.38%↑),

광양시 992명(0.72%↑), 목포시 1천 157명(0.48%↑), 순천시 123명(0.05%↑) 등 4개 시·군의 인구는 3월 말 현재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늘어났다.

이처럼 인구 감소폭이 크게 둔화된 것은 ▲목포 등 전남 서남권의 조선업 관련 업체 증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물동량 증가로 인한 배후단지 업체 증가 ▲귀농과 국제결혼 이민여성 증가에 따른 출생률 상승 등이 한몫을 한 것으로 전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

전남도는 15일 “지난 2002년 이후 월평균 2천여명의 인구가 감소해 왔으나, 지난해 6월부터는 1천308명으로 줄어들어 뒤 같은 해 말에는 873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2년말 현재 월평균 4천608명이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4천699명, 2004년 2천535명, 2005년 1천747명, 2006년 2천224명 등 감소폭이 꾸준히 줄었다.

반면 무안군 3천947명(6.38%↑),

광양시 992명(0.72%↑), 목포시 1천 157명(0.48%↑), 순천시 123명(0.05%↑) 등 4개 시·군의 인구는 3월 말 현재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늘어났다.

이처럼 인구 감소폭이 크게 둔화된 것은 ▲목포 등 전남 서남권의 조선업 관련 업체 증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물동량 증가로 인한 배후단지 업체 증가 ▲귀농과 국제결혼 이민여성 증가에 따른 출생률 상승 등이 한몫을 한 것으로 전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

전남도는 15일 “지난 2002년 이후 월평균 2천여명의 인구가 감소해 왔으나, 지난해 6월부터는 1천308명으로 줄어들어 뒤 같은 해 말에는 873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2년말 현재 월평균 4천608명이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4천699명, 2004년 2천535명, 2005년 1천747명, 2006년 2천224명 등 감소폭이 꾸준히 줄었다.

반면 무안군 3천947명(6.38%↑),

광양시 992명(0.72%↑), 목포시 1천 157명(0.48%↑), 순천시 123명(0.05%↑) 등 4개 시·군의 인구는 3월 말 현재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늘어났다.

이처럼 인구 감소폭이 크게 둔화된 것은 ▲목포 등 전남 서남권의 조선업 관련 업체 증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물동량 증가로 인한 배후단지 업체 증가 ▲귀농과 국제결혼 이민여성 증가에 따른 출생률 상승 등이 한몫을 한 것으로 전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

전남도는 15일 “지난 2002년 이후 월평균 2천여명의 인구가 감소해 왔으나, 지난해 6월부터는 1천308명으로 줄어들어 뒤 같은 해 말에는 873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2년말 현재 월평균 4천608명이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4천699명, 2004년 2천535명, 2005년 1천747명, 2006년 2천224명 등 감소폭이 꾸준히 줄었다.

반면 무안군 3천947명(6.38%↑),

광양시 992명(0.72%↑), 목포시 1천 157명(0.48%↑), 순천시 123명(0.05%↑) 등 4개 시·군의 인구는 3월 말 현재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늘어났다.

이처럼 인구 감소폭이 크게 둔화된 것은 ▲목포 등 전남 서남권의 조선업 관련 업체 증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물동량 증가로 인한 배후단지 업체 증가 ▲귀농과 국제결혼 이민여성 증가에 따른 출생률 상승 등이 한몫을 한 것으로 전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

전남도는 15일 “지난 2002년 이후 월평균 2천여명의 인구가 감소해 왔으나, 지난해 6월부터는 1천308명으로 줄어들어 뒤 같은 해 말에는 873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2년말 현재 월평균 4천608명이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4천699명, 2004년 2천535명, 2005년 1천747명, 2006년 2천224명 등 감소폭이 꾸준히 줄었다.

반면 무안군 3천947명(6.38%↑),

광양시 992명(0.72%↑), 목포시 1천 157명(0.48%↑), 순천시 123명(0.05%↑) 등 4개 시·군의 인구는 3월 말 현재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늘어났다.

이처럼 인구 감소폭이 크게 둔화된 것은 ▲목포 등 전남 서남권의 조선업 관련 업체 증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물동량 증가로 인한 배후단지 업체 증가 ▲귀농과 국제결혼 이민여성 증가에 따른 출생률 상승 등이 한몫을 한 것으로 전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

전남도는 15일 “지난 2002년 이후 월평균 2천여명의 인구가 감소해 왔으나, 지난해 6월부터는 1천308명으로 줄어들어 뒤 같은 해 말에는 873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2년말 현재 월평균 4천608명이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4천699명, 2004년 2천535명, 2005년 1천747명, 2006년 2천224명 등 감소폭이 꾸준히 줄었다.

반면 무안군 3천947명(6.38%↑),

광양시 992명(0.72%↑), 목포시 1천 157명(0.48%↑), 순천시 123명(0.05%↑) 등 4개 시·군의 인구는 3월 말 현재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늘어났다.

이처럼 인구 감소폭이 크게 둔화된 것은 ▲목포 등 전남 서남권의 조선업 관련 업체 증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물동량 증가로 인한 배후단지 업체 증가 ▲귀농과 국제결혼 이민여성 증가에 따른 출생률 상승 등이 한몫을 한 것으로 전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

전남도는 15일 “지난 2002년 이후 월평균 2천여명의 인구가 감소해 왔으나, 지난해 6월부터는 1천308명으로 줄어들어 뒤 같은 해 말에는 873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2년말 현재 월평균 4천608명이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4천699명, 2004년 2천535명, 2005년 1천747명, 2006년 2천224명 등 감소폭이 꾸준히 줄었다.

반면 무안군 3천947명(6.38%↑),

광양시 992명(0.72%↑), 목포시 1천 157명(0.48%↑), 순천시 123명(0.05%↑) 등 4개 시·군의 인구는 3월 말 현재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늘어났다.

이처럼 인구 감소폭이 크게 둔화된 것은 ▲목포 등 전남 서남권의 조선업 관련 업체 증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물동량 증가로 인한 배후단지 업체 증가 ▲귀농과 국제결혼 이민여성 증가에 따른 출생률 상승 등이 한몫을 한 것으로 전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

전남도는 15일 “지난 2002년 이후 월평균 2천여명의 인구가 감소해 왔으나, 지난해 6월부터는 1천308명으로 줄어들어 뒤 같은 해 말에는 873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2년말 현재 월평균 4천608명이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4천699명, 2004년 2천535명